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안전 점검 완료! 18일 개장

8월 17일까지 운영... 워터슬라이드 등 놀이시설 구비

전남 함평군은 여름철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개장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함평군은 14일 "이상의 함평군수가 이날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31일간 운영되며, 매년 3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찾는 전남 대표 여름철 피서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5 함평 물놀이 페스타'가 처음으로 열리며 더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6월부터 폭염 및 수상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심의회를 열어 대응 체계를 강화해왔다.

이 군수는 이날 파도풀, 워터슬라이드 등 주요 놀이시설과 수질관리 상황, 안전 매뉴얼 이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 인구 밀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시장·체력관 등 공원 내 유휴 공간으로의 분산 유도를 지시했다.

햇빛 노출이 장시간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차광막 및 인조 잔디 매트 설치 상태도 세심히 살피며, 작은 위험 요소까지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점검에 임했다.

아울러 현장에는 인명구조요원, 의료요원, 안전요원 등을 충분히 배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물놀이 페스타 대표 프로그램 '서바이벌 물총대전'에 대비해 샤워부스 5대와 해바라기 수전 4대의 설치 및 작동 상태도 직접 확인하며 무더위 속 체온 조절을 위한 시설도 세심히 챙겼다.

올해 물놀이장의 가장 큰 특징은 함평



군 자체 캐릭터 '황박이'를 활용한 차광막 디자인이다. 입구와 물품대여소 등 차광 시설에 황박이 캐릭터를 넣어 이용객에게 대기하거나 쉬 때도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늘막, 쉼터, 락커룸 등 무료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으며, 조리된 배달 음식 반입이 가능한 점은 타 지역 물놀이장과 차별화 요소로, 피서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군민과 관광객분들이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에서 즐겁게 노시며 더위를 모두 날려버리시길 바란다"며 "즐거운 여름을 선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수질관리 및 시설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함평/전광준 기자



성장 밑그림 그린 장성군 향룡강

'1000만 관광도시' 발돋움

'향룡강 관광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최종용역보고회'

장성군이 향룡강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의 첫 단추를 꿴다.

군은 지난 10일 군청 상황실에서 '향룡강 관광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장성군이 향룡강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의 첫 단추를 꿴다. 향룡강 관광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기본구상의 제목은 '향룡강 성장투어 프로젝트'다. 장성군 도시브랜드 '성장장성'을 반영한 △관광 거점화 △생활 관광화 △친수 도시화 △지속가능화 4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관광 거점화'를 위해서는 물문화와 생태 보전 가치를 알리는 '향룡강 물문화관' 건립, 향룡강 축제장과 음식가지를 잇는 '향룡 페스티벌광장' 조성, 숙박·상업단지를 조성하는 '향룡 베네치아 타운' 구축 등이 제시됐다.

향미랜드에 넷드공원, 미니폴장 등을 조성하는 '향미르 가족랜드' 개

발, 향룡강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와 야간경관을 갖춘 '성장장성 별빛누리' 조성, 안산둘레길 미디어과사드 설치, 장성호 유람선 운영 등도 제안됐다.

'생활 관광화' 부문에선 장성호에 스마트 미디어 계단과 전망타워 엘리베이터, 야간 홀로그램 설치 제안과 향룡강 꽃길을 달리는 '향룡열차' 운행, 장성호-필암서원 구간 투어버스 운영 등이 관심을 끌었다.

'친수 도시화' 부문에서는 기업·동호인 대상 '향룡워크숍파크' 조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자립형 '향룡 RE100타운' 건립, 수생식물 서식처 복원 등의 계획이 주를 이뤘다.

향룡강 관광의 '지속가능화'를 위한 수변경관형 도시계획과 경관조성지점(가이드라인) 수립, 민관협력체계(거버넌스)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장성/황해연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정부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화순군민이라면 20만 원~4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 2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화순군에 주민등록(6월 18일 기준)이 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군민이면 누구나 개별 소비쿠폰을 신청할

화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1차분 지급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지류 지역사랑상품권 등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민원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오프 라인 모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고, 주말은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소비쿠폰 사용처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카드는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한정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 사수가 목표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고, 신속하게 소비하는 게 중요하다. 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신청이 소상공인과 지역업자의 매출 확대에 발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 군민생활문화센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어울림센터에서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쿠폰은 지급 시작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유효기간 경과 시 자동 소멸된다. 화순군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화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화순/김종환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현장 소통의 날' 통해 시민과 직접 소통

별빛 캠핑장,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 박차

정인화 시장은 지난 7월 14일 '7월 중 제2차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별빛캠핑장과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중마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현장을 시민과 함께 방문했다.

이날 정 시장은 ▲별빛캠핑장 및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 ▲마동체육공원 내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건의 현장 ▲길호대교-호텔 락희 데크길 조성 건의 현장 ▲송보 6차-가야산 등산로 입구 데크길 개설 건의 현장, 총 4개소를 차례로 찾았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별빛캠핑장과 배알도 수변 히어로즈 파크 조성사업 현장은 점진장과 배알도를 배경으로 100만 규모

의 캠핑 사이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이다.

정 시장은 우수기 대비 토사 유출 등 안전 우려가 없는지 공사 현장을 점검한 뒤, 관계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이어 오토캠핑장과 일반캠핑장, 카라반 구역 등 캠핑 사이트의 규모와 배치, 매점 등 부대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을 꼼꼼히 살폈다.

첫 번째 현장 점검을 마친 정 시장은 "캠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문화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조형미를 갖춘 버스킹 공간을 조성할 것"을 지시했으며, "커뮤니티 시설은 그 성격을 명확히 해, 캠핑 사이트가 아닌 별도의 공간에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러진 일정으로 정 시장은 지난 6월 27일 열린 '중마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건의 사항 관련 현장 3곳을 방문해 시민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두 번째 방문지는 마동체육공원 일원으로, 주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 황톳길을 조성해달라는 의견

이 제기된 곳이다. 정 시장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부서의 검토 결과를 청취한 뒤 "마동체육공원 전체 외곽을 대상으로 소요 예산 등을 고려해 단계별로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광군, '휴가철 농산물 원산지 표시 교차단속' 실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7월 28일부터 8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하며,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유통업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인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구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영광/이현식 기자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주요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사항으로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 표시 및 소비자가 혼동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한 지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며, "관내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